

---

# 일반논문

---



## ‘국어’는 근대적 기본 개념어인가?\*

이 병 기\*\*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과연 ‘국어’(國語)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기본 개념어인 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의 논의에 기대어 고찰하고자 한다. 논의의 전반부에서는 개념사 논의의 의의와 기본 개념어의 특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현대의 ‘국어’ 개념을 분석하고 이러한 개념이 과연 근대 시기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현대의 ‘국어’ 개념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와 『국어기본법』 조문의 검토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현대의 ‘국어’ 개념에는 ‘공용어’, ‘국민화’, ‘민족성’, ‘국문’, ‘지역성’ 등의 요소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어’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기본 개념어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코젤렉이 설정한 네 가지 개념 변화 범주, 즉 민주화(Demokratisierung), 시간화(Verzeitlichung), 이념화(Ideologisierung, 이데올로기화), 정치화(Politisierung)에

---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사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001).

\*\*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제어: 국어, 국문, 근대, 개념사, 민주화, 시간화, 이념화, 정치화

‘Gugeo’, modern, conceptual history, democratization, temporalization, ideologization, politicization

대하여 설명하고 ‘국어’가 이러한 변화들을 겪었는지 살펴보았다. 어떠한 개념이 이들 변화를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근대 ‘기본 개념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어’가 한국의 근대 이행기라고 할 수 있는 1910년 이전 시기에 이러한 변화를 겪었거나 겪는 중이라는 사실은 ‘국어’를 개념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국어’라는 단어가 근대 시기의 사회,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급진적인 개념 변화를 입었지만 전통적인 개념 속에 그 변화의 단초를 가지고 있었고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에 대한 민족적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상론은 이후의 과제로 남겼다.

## 1. 도입

이 논문은 과연 ‘국어’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기본 개념어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념사는 특정 사회 구조의 변화나 정치적 상황 등의 맥락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들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이 개념어의 의미를 역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여 서술함으로써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 ‘국어’의 개념사를 기술하는 것은 ‘국어’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특정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미 변화를 겪었고 어떠한 사회적 영향력과 기능을 가지는지를 추적하는 한편 ‘국어’와 관련된 사회·정치적 파장을 예측하는 작업으로서, 이혜령(2005)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아직도 ‘국어’를 둘러싼 관련 관계와 논쟁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어’ 개념사는 ‘국어’가 근대 특정 기간에 근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근대적인 개념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즉 ‘국어’가 근대적 개념어 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sup>1)</sup>

근대의 기본 개념어는 코젤렉(Reinhart Koselleck)에 의해 설정되었는데 역사 속에서 변화를 겪는 모든 단어가 개념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코젤렉이 편찬한 『역사적 기본개념』(1972-1998)에는 7권 분량에 115 표제의 개념어가 서술되어 있다.<sup>2)</sup> 이들 개념어들은 기본적으로 다의성과 애매모호함을 가지며 수많은 다른 개념어들과 복합적으로 연동되어 공적인 담론과 논쟁에 빈번하게 사용된다.<sup>3)</sup> 그리고 이들 개념어는 일반 어휘가 근대 ‘말안장(을 엮은) 시대’(Sattelzeit)를 거치면서 근대적인 담론 체계를 구성하는 개념어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말안장 시대’란 코젤렉이 『역사적 기본개념』의 ‘지침’을 마련하면서 내세운 것으로 유럽 근대 세계의 시민혁명, 산업혁명과 함께 전통적 개념 세계에서 근대적 개념 세계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언어혁명이 일어난 시기(대략 1750년에서 1850년)를 은유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말안장’이라는 모양은 과거의 경험이 응축되고 갈등 속에서 그 응축이 미래로 이어지는 개념의 역동성과 관련된다.

- 
- 1) ‘국어’가 근대적 개념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국어’ 개념어의 위상, ‘국어’ 개념의 여러 기표, ‘국어’ 담론장의 변화, 언문일치, 규범화 및 표준화, 국어 교육, 국어 연구, 근대 국문학, 번역, 출판문화와 매체, 민족 및 국가의 성립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여 ‘국어’의 개념사를 서술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이러한 서술에 앞선 준비 작업의 성격으로 ‘국어’가 개념사 서술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각 표제에는 주로 하나의 개념어가 있지만 ‘Vork (people, 국민/민족)’에 ‘Nation, Nationalismus, Masse’가 같이 포함되어 기술되는 것과 같이 연관된 복수의 개념어가 하나의 표제에 있기도 하여 실제로는 120여 개 이상의 기본개념어가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언어’, ‘국어’ 등에 대응될 만한 개념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3) 나인호(2011), p. 71. 이와 관련하여 델빈 릭터는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1995/2010)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기본 개념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애매하기까지 한 이유에 대하여 집단 사이의 피할 수 없는 이해상충은 기본 개념들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이유로 상충적 의미 차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기본개념들의 용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오랜 감론을박의 역사도 그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에서는 인문한국 사업을 통해 ‘한국개념사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발간사에서 한국의 ‘말안장 시대’를 1850년에서 1950년으로 잡고 이 시기에 형성된 개념을 ①서구에서 번역 유입된 개념, ②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개념이 굴절되어 혼재된 개념, ③사라진 개념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는 기본 개념어로 간주되어 현재까지 ‘한국개념사총서’로 집필된 개념은 ‘민국공법, 국가·주권, 헌법, 문명, 문학, 국민·인민·시민, 민족·민족주의, 제국, 노동’ 등이 있으며 ‘국어’도 이러한 개념어와 같은 자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집필될 총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국어’를 위 세 유형 중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둘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동양의 전통적 사유체계 속에서 ‘국어’는 다양한 기표와 개념으로 존재해 왔고 이 전통적인 개념에 서양의 근대적 개념이 혼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 개념사를 서술하는 데는 서구의 기본 개념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른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먼저 ‘국어’가 과연 기본 개념어로서 개념사 서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념사 연구 방법의 개척자인 코젤렉의 방법론에 ‘국어’를 비추어 보는 작업은 이러한 고민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젤렉은 전통적 어휘가 근대적 기본개념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특징으로 개념 의미의 민주화·시간화·이데올로기화·정치화라는 네 가지 범주를 들고 있다.<sup>4)</sup> 만약 ‘국어’가 근대 시기에 이 네 범주의 변화를 겪었다면 ‘국어’를 근대적 개념어라고 이해할 수 있는 토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2장과 3장에서는 ‘국어’라는 단어의 근대적 개념을 확인하고 이 근대적 개념의 특성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네 가지 변

4) ‘말안장 시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근대 개념 변화의 특징은 『역사적 기본개념』(1972-1997) 첫째 권의 서문에서 이루어졌는데 독어로 된 원문을 참조하지 못하고 박근갑(2009), 나인호(2011, 2014), 멜빈 릭터(1995/2010, pp. 78-83)의 설명을 참고하였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영문 번역(Reinhart Koselleck 1972/2011)을 참조하였다.

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국어’가 코젤렉의 시각에서 근대 기본 개념어라고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로 한다.

## 2. 현대의 ‘국어’ 개념

현대의 ‘국어’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근대 이전과 이후의 근대적 변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의 개념을 그 대강이나마 파악해봄으로써 근대적 변모를 겪은 이후의 ‘국어’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근대적 변화를 탐지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전과 <국어 기본법>의 조항에서 분석되는 ‘국어’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국어01 (國語)「명사」

「1」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 ≡나라말·방어01 (邦語).

「2」우리나라의 언어. ‘한국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이르는 말이다.

(1)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풀이된 ‘국어’의 뜻을 보인 것이다. 국가어로서의 ‘국어’와 한국어로서의 ‘국어’ 두 가지 뜻을 풀이하고 있다.<sup>5)</sup> 주목되는 점은 ‘한국어’로서의 ‘국어’는 용어의 사용 주체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국어’는 국가어로서의 ‘국어’와 한국어로서의 ‘국어’가 그 외연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6)</sup> 고려대학교에서 편찬한 『한

5) ‘국어’ 개념사 연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어’ 곧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이라는 개념이지만 “한국어”의 개념이 어떻게 ‘국어’에 고정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은 ‘국어’개념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국어’라는 하나의 기표가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는 경우는 일본, 대만 등 한자문화권의 몇몇 국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국어대사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언어”를 첫 번째 뜻으로 하고 교과목 ‘국어’를 세 번째 뜻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뜻풀이는 『연세한국어사전』, 『우리말 큰사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어”를 뜻하는 유의어에 ‘우리말’을 추가한 것도 눈에 띈다. 그리고 사전에 따라 겨례말, 민족어, 우리말, 한국어 등 그 의미는 다르지만 ‘국어’와 외연에서 큰 차이가 없는 단어들도 수록되어 있다.<sup>7)</sup>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하고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국어기본법>에는 국어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법이라는 특성 상 <국어기본법>에서는 현재 ‘국어’ 개념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 (2) 제3조 ①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②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④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 
- 6)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한국어’의 뜻풀이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형태상으로는 교착어이고, 계통적으로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한반도 전역 및 제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쓴다. 어순(語順)은 주어, 목적어(또는 보어), 술어의 순이며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놓이는 것 따위의 특성이 있다. ≍한글말·한말01·한어03.”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의 유형론적, 계통론적 특징 등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용어 사용 주제에 대한 제한이 없다.
- 7) ‘고영근(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머리말』에서는 남과 북에서 우리말을 지칭하는 용어가 ‘한국어’와 ‘조선어’로 갈라져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남북의 문법 연구, 남북의 언어를 통합하여 다루고 궁극적으로 문법과 언어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책을 제목을 『우리말 문법론』으로 정하였다”고 하였는데 같은 해 다른 책(『민족어의 수호와 발전』)에서는 ‘민족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현대에 있어서도 ‘국어’를 둘러싼 담론은 그 용어에 있어서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이 법률에서는 ‘국어’를 공용어로서의 한국어로 정의하여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공식적인 언어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제2조(기본 이념)에서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어’를 민족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제4조)’라는 규정을 통해 ‘국어’의 외연에 ‘지역어’를 포함시키고 있다. <국어기본법>에서는 교육과 공적인 언어에서 표준어 및 어문규범을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용어(公用語)의 기본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용어’로서의 ‘국어’와 ‘지역어’의 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역어’가 국어의 일부라는 데는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동의하고 있으며 <국어기본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그리고 ‘한글’을 우리의 고유 문자로 따로 정의하였는데 이곳의 ‘우리’의 ‘대한민국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글

8) 조항을 면밀히 따져보면 지역어는 발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존’의 대상이다. 국어와 지역어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상론은 이 논문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다른 기회를 기약한다.

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공문서 작성을 한글로 해야 한다(제14조)’,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제20조)’ 등의 규정을 통해 민족문화로서의 ‘한글’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논란 끝에 공문서에서 한자나 외국 글자를 병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심스럽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어 및 국문에 관한 담론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국어능력’을 따로 정하고 이하 여러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모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 <사전>과 <국어기본법>에서 분석되는 현대의 ‘국어’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3). 현대의 ‘국어’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
  - 가. 공용어-대한민국의 공용어임(표준화, 규범화)
  - 나. 국민화-국민 전체가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평등화, 균질화)
  - 다. 민족성-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가짐
  - 라. 국문-국어는 한글로 표기함
  - 마. 지역성-지역어를 ‘국어’의 일부에 포함함

현대에 나타나는 여러 담론을 분석하여야 현대의 ‘국어’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이곳의 고찰 목적은 현대 ‘국어’ 개념의 대강을 파악하고 현재에도 애매모호함과 논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3)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3 가)는 ‘국어’가 ‘국가어’, ‘공용어’로서 교육, 행정, 법률 등의 공적 영역에 사용된다는 것을 뜻하며 표준화 및 규범화를 수반한다.<sup>9)</sup> (3 나)는 국민

9) 익명의 심사자는 법적인 공용어와 사실적 공용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사를 통해 도움 말씀을 주신 여러 심사자들에게 감사

전체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술입과 동시에 국어로 된 전문어 및 특수어에 대한 이해도 모든 계층이 가능해야 하며 시각, 청각 등의 장애가 있다고 해도 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국어가 일상어로 사용됨은 물론 전문 지성의 언어로도 사용됨을 말하는 것이며 평등화, 균질화의 특성도 수반한다. 그리고 <국어기본법>에서 ‘국어능력’의 신장을 강조하는데 이 역시 ‘국어’의 ‘국민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는 ‘국어’와 ‘민족’의 역사적 연관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국어’의 개념에 도구로서의 언어와 언어 표현 결과물(문학 등)이 함께 녹아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언어와 민족의 공동 운명을 전제한 것이기도 하다. (3 라)는 ‘한글’을 국어의 한 축인 ‘국문’으로 인정하고 우리말을 우리 문자로 적어야 함을 말한다. 이는 ‘언문일치’와 관련한 한글과 한자의 사용 문제와 관련되며 근대 형성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문’이 ‘국어’의 한 요소로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3 마)는 표준화, 규범화, 추상화를 지향하면서도 지역어를 ‘국어’에 포함시켜 ‘국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어기본법의 특성상 국어의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국어 역사의 공간적 투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어’에 대한 고려는 국어의 역사와도 관련되며 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과거와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어의 역사 역시 <국어기본법>의 ‘국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에서 제시한 현대의 ‘국어’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보통 근대에 녹아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영진(2013)에서는 ‘근대어’의 특징으로

표한다. 이곳의 공용어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공용어’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근대 국가는 헌법에 국체로서 ‘언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도적인 측면의 ‘공용어’가 근대적인 성격을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근대 개념어의 네 가지 변화와는 직접적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상론하지 않기로 한다.

글말의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입말의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특히 글말의 차원에서는 그 언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을 공적,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법률, 교육의 영역을 특히 강조하였다.<sup>10)</sup> 이러한 근대의 '국어' 개념 및 이의 형성에 대하여는 조태린(2006), 최경봉(2012), 김병문(2012/2013) 등 국어학 전공자의 최근 연구에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2000년을 전후한 근대 국문 및 국어 담론을 다룬 많은 문학 전공자들의 연구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조태린(2006)은 특히 '국어'의 관련어라고 할 수 있는 '공통어', '표준어', '국민어', '공용어', '국가어' 등의 개념을 정리하고 일본의 '국어(코쿠고)'의 형성 과정을 비교하여 '국어'라는 용어의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논의의 결론으로 '국어'를 "국민의 혼이자 국민성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으로서의 '국민어', 근대 자본주의 생산 체제와 국민국가 성립에 필수적인 '표준어', 행정 등의 공공분야에서 실용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용어', 국가 차원에서 그 지위와 기능을 인정받는 '국가어'"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sup>11)</sup> 그리고 이러한 근대적 '국어'개념의 형성에는 '국가=민족=언어'를 하나로 연결하는 일본 '코쿠고'의 논리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으로 현대의 '국어' 개념을 현대 국어 사전과 <국어기본법>을 통해 그 대강을 알아보고 근대에 들어 근대적 '국어'의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본 여러 논의들에서 설명한 현대의 '국어' 개념과 동궤에 있음을 살펴해보았다. 이러한 '국어' 및 '국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근대

10) 고영진(2013), p. 239.

11) 조태린(2006), pp. 387-389. 한편 조태린(2006)은 국민어가 근대적 국민국가를 독자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공동체의 언어(하나의 국가에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언어)에도 붙여질 수 있는 용어라면 '국어'(코쿠고)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공동체를 병합하면서 근대적 국민국가를 수립한 공동체의 언어에만 붙여지는 용어로 구분했다.

이전 시기에도 사용되었다. 백두현(2004<sub>L</sub>)은 고대의 각종 사료와 『훈민정음』 등의 문헌 기록에 나타난 우리말 명칭어의 용례를 통해 각 명칭어의 의미와 그 역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辰語, 加羅語, 夫餘俗語, 麗語; 高麗話’, ‘方言(方言), 鄉語(鄉言), 俚語(俚言)’, ‘諺(諺語)’, ‘國語, 한말, 배달말’ 등의 명칭어들을 이에 담긴 민족 의식과 국가에 대한 관념을 관련지어 설명하였고 특히 『훈민정음』 해례에 2회 등장하는 ‘國語’가 세종대에 이룩된 민족 주체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어’가 국가의 언어를 의미하고 민족의식이 함의되었다고 해서<sup>12)</sup> 코젤렉이 말하는 근대적 개념어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 코젤렉이 말한 근대적 개념 변화의 특징에 기대어 근대 시기 ‘국어’의 개념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 ‘국어’의 근대적 개념어화

‘국어’가 과연 근대적 개념어인지 개념어라면 언제부터 근대적 개념어로 사용되었는지는, 전술했듯이 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국어’라는 개념 속에는 다시 수많은 개념들이 응축되어 있고 개념 자체가 계속 운동한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며 전통적인 개념과의 변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코젤렉이 제시한, 일반 어휘가 개념어로 변화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네 가지 유형의 변화를 ‘국어’도 겪었는지 각각의 양상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국어’가 근대적 개념어의 성격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2) 실제로 근대 이전 ‘국어’에 함의된 민족의식은 근대 ‘국어’ 개념에 함의된 민족의식과는 다르다. 이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 3.1. 민주화

코젤렉이 말한 ‘민주화’(Demokratisierung)란 신분사회가 해체되면서 엘리트 집단의 전문 영역이었던 많은 어휘들, 특히 정치·사회적 개념이 엘리트층을 넘어서 점점 하부계층으로 사용 영역이 확대된 현상을 의미한다.<sup>13)</sup> ‘국어’의 경우에도 이러한 민주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언어 및 문자 관련 담론이 상층의 일부 문집에서 발견되다가 대중 매체를 통해 대중 담론으로 확대된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이 비록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기는 했지만 이들이 중세 신분사회에서 상층을 담당하는 계층이 아니었고 하층의 독자층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독자들이 이러한 담론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국어’라는 개념이 ‘민주화’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국어’ 및 ‘국문’에 대한 인식 및 담론은 애국 계몽기 이전 중세의 문헌들에서도 발견된다.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이현희(2014)에서 이루어졌는데 중국과 조선은 풍토가 다르므로 그 언어의 소리 역시 다르다고 인식한 『훈민정음』의 「정인지서」, 『동국정운』의 「신숙주서」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풍토설’은 이상혁(1997), 백두현(2004), 장윤희(2012) 등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이현희(2014)에서는 이러한 ‘풍토설’이 조선 전 시기를 걸쳐 보편적인 언어관으로 작동하며 주시경의 저술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이현희(2014)에 보인 제 시문을 일부 옮긴 것이다.

- (4) 가. 四方의 風土는 서로 다르고, 소리의 기운 또한 그에 따라 달라진다. 대개 중국 이외의 나라말은 그 소리는 있으나,

13) 나인호(2011), p. 145, 멜빈 릭터(1995/2010), p. 80.

그 글자가 없다.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널리 쓰고 있으나, 이는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끼운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므로,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훈민정음』의 「정인지서」>

나. 우리나라는 안팎 강산이 자작으로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호흡이 어찌 중국음과 서로 합치될 것이라! <『동국정운』의 「신숙주서」>

다. 우리나라의 언어는 중국과 달라서 文字나 聲音이 자연 모두 같지 않으니, 이는 風氣와 土俗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趙翼(1579~1655)의 「三經字音序」>

라. 그 天然의 境界와 人種의 各異함을 따라 그 水土風氣의 稟賦되로 각: 그 人種이 처음으로 싱길 때불어 自然 發音되어 그 音으로 物件을 일함하고 意思를 표하여 次: 그 社會에 通用하는 말이 되고 그 말에 合當한 文字를 지어 쓰며 <周時經(1876~1914)의 「大韓國語文法跋文」(1906)>

(4)에서 보이는 언급들은 ‘국어’가 다른 언어와 다르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어’를 민족과 연관 짓는 한편 ‘국어’를 대상화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현희(2014)에서 소개한, 최세진이 사용한 ‘國語’는 한국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이어서 ‘국어’라는 개념어가 근대에 생겼다는 여러 논의들에 재고를 요한다. 하지만 개념사에서 중요한 것은 일부 상층의 인식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며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담론이 언제부터 대중적으로 확대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연구가 필요한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방법론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가능할 듯하다. 여기서는 대중 매체에서 ‘국어’ 관련 담론의 의미 있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통해 개념의 민주화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4)</sup>

14) 물론 신문 등의 대중 매체는 중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근대 매체에 ‘국어’ 관련 담론

- 「논설」 『독립신문』 1호 1896/04/07  
 「국문론」 지식영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호 1896/12/30  
 「국문론」 주상호<sup>15)</sup> 『독립신문』 47, 48호 1897 (건양2)/04/22, 24  
 「漢文字와 國文字의 損益如何(續)」 신해영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5, 16호 1897 (광무1)/06/30, 07/15  
 「국문론」 주상호 『독립신문』 134호, 135호 1897/09/25, 28  
 「國文漢文論 上下」 『皇城新聞』 20호 1898/09/28  
 「國文源流」 『皇城新聞』 96호, 97호 別報 1899/05/02, 03  
 「타국 글이 아니라」 『독립신문』 112호 1899/05/20  
 「或國漢文으로…或純國文으로」 논설, 『대한매일신보』, 1905/10/12  
 「大韓國文說」 지식영 『大韓自強會月報』 11호, 13호 1906/05/25, 07/25  
 「朝鮮魂」<sup>16)</sup> 崔錫夏 『太極學報』 5호 1906/12  
 「국어와 국문의 필요」 주시경 『西友』 2호 1907/01/01  
 「國文便利 及 漢文弊害의 說(續)」 강진 『太極學報』 6호, 7호 1907/01/24,  
 02/24  
 「國語維持論」 朴太緒 『夜雷』 1호 1906/02/05  
 「國文과 漢文의 關係」<sup>17)</sup> 韓興教 『大韓留學生會學報』 1호 1907/03/03  
 「必尙自國文言」 주시경 『皇城新聞』 2442호-2447호 1907/04/01-06  
 「保守와 改進(續)」 『皇城新聞』 1907/04/24, 26  
 「국문론」<sup>18)</sup> 狄심즈 『京鄉新聞』 30호, 31호 1907/05/10, 17

---

이 등장한다고 해서 근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어’ 개념이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매체에 등장한다고 설명하든, 매체의 발달로 ‘국어’ 개념이 민주화되었다고 설명하든 매체에 등장하는 ‘국어’를 통해 이 개념이 민주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15) 필자가 ‘주상호’로 되어 있는데 ‘주시경’을 말한다. 7번의 「국문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16) 《中國魂》에 나타난 양계초의 애국론을 참조하여 한국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17) 우리글과 한문을 조화시켜 일본과 같이 열강에 다가서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문을 강조하는 다른 글들과 차이를 보이지만 문자의 사용과 민족의 성패를 관련지었다는 점에서 같이 소개한다. 이러한 논조는 이승교의 「國漢文論」 등의 글에서도 보인다.



- 「국민신보 발간」 사설 『大韓每日申報』 1호 1907/05/23
- 「教授와 教科에 對하야」<sup>19)</sup> 장응진 『太極學報』 13호, 14호 1907/09/24, 10/24
- 「漢字統一會開設에 關한 議見」 『西友』 13호, 14호 1907/12/01, 1908/01/01
- 「音響의 니야기」 연구생 『太極學報』 16호 1907/12/24
- 「論漢文國文」 여규형 『大東學會月報』 1호 1908/02/25
- 「朝鮮魂이 稍稍還來乎」, 『皇城新聞』 1908/03/20
- 「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 이보경 『太極學報』 21호 1908/05/24
- 「論國文」 이종일 『大韓協會會報』 2호 1908/05/25
- 「國漢文論」 이승교 『西北學會月報』 1호 1908/06/01
- 「一斧劈破(續)」 이기 『湖南學報』 1-3호<sup>20)</sup> 1908/06/25, 07/25, 08/25
- 「사립국문학교취지서」 『대한매일신보』 국문보 1908/10/31
- 「文法을 宜統一」 신채호 부록: 「小別漢文」 규표자 『畿湖興學報』 5호 1908/12/25
- 「대한문전 서문」<sup>21)</sup> 최광옥 『대한문전』 1908
- 「語學의 性質」 원석산인 『大韓協會會報』 11호 1909/02/25
- 「천희당시화」 신채호 『대한매일신보』, 1909/11/17, 20<sup>22)</sup>
- 「국문풍월현상모집」 『신한민보』 1910/03/09<sup>23)</sup>

- 
- 18) 한문을 숭상하고 국문을 멸시한 까닭에 실학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한탄하고 주교 ‘안토니(안안도니)’와 남승지 등이 국문 규칙을 정리하였으나 병인양요로 실현하였기 때문에 다시 이를 잇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 19) 국민 교육에 있어 십적 도야와 지식의 습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며 교수할 과목을 소개하는데 ‘言語科(國語 及 外國語)’에서 국어 및 국문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 20) 『湖南學報』 2호에는 「與呂荷亭書」(황희성)와 「國漢文輕重論」(매일신보)이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이들 글에는 국문으로 평등하게 교육하면 독립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 21) “我國의 言語는 我國國語라 國語가 國民으로 關係됨이 甚大하니”로 시작하고 있다.
- 22) 신채호는 이 글에서 “『帝國新聞』에 일찍이 國字韻을 懸하고 國文七字詩를 購賞하였으니 此七字詩도 或 一種 新國詩體가 될까?”라고 언문풍월을 언급하고 국문칠자시가 한시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진정한 새로운 시는 “東國語, 東國文, 東國音으로 製한 者”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슬기(2013) 참조.

「한나라말」 주시경 『普中親睦會報』 1호 1910/06/01  
 「今日我韓用文에 對하야」 이광수 『皇城新聞』 3430-3432호 1910/07/24,  
 26, 27

위에 보인 목록은 하동호 편(1985)<sup>24)</sup>를 바탕으로 1910년 이전까지 신문, 잡지, 책 등에 나타난 ‘국어’ 관련 글들을 찾아 시대순으로 모아놓은 것이다. 이 목록들을 살펴보면 순국문을 표방하여 독자층을 하층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독립신문』에서부터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매체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과 ‘연구생’과 같이 일반인에 가까운 다양한 사람들이 담론의 생산 주체로 참여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언문풍월 및 국문풍월과 같이 순국문, 고유어로만 지은 시가 문학에 대한 공모에 대한 글도 민주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황성신문』의 국한문을 交用한다는 社告(1898/09/29), 『대한매일신보』의 번역의 문체에 대한 논설(1905/10/12), 국어 자전을 통해 통일된 국어와 국문을 쓰도록 하자는 글(1908/03/01), 국문을 써서 말과 글이 일치되게 하기를 주장한 글(1909/12/15), 1898년 창간한 『태국신문』의 여러 글들,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가명잡지』의 글들 등 1910년 이전의 여러 매체에서 ‘국어’관련 글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어’ 개념의 민주화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위 목록의 글들은 대부분 구어로서의 ‘국어’보다는 ‘국문’에 대한 글들이다. 언어학적으로 ‘국어’와 ‘국문’은 엄밀히 구분된다. 하지만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대적 ‘국어’ 개념에는 ‘국문’이 포함되며 당시 사람들의 ‘국문’에 대한 담론

23) 레지(글짓는격식) — 한문음으로논짓지말고우리나라말노써지오되글데를보지안코 글만보더라도완연히글데뜻을알게홀일

24) 이 책은 김민수·고영근 편역 역대한국문법대계의 일부인데 제3부 제3책에 실린 『國文論集成』만은 하동호 개인 편으로 되어 있다.

은 ‘국어’에 대한 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언어학적인 고찰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문’에 관한 사항 역시 ‘국어’에 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송호근(2011)에서 한글을 통하여 공론장이 동학혁명을 전후로 하층으로 확대 이동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신문 등의 매체 발행 이전에 이미 ‘국문’을 통한 ‘국어’ 담론이 하층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리고 1895년 소학교령이 발표된 이후 근대식 교육이 활성화되었고 이른바 국어 교과서도 『국민소학독본』을 비롯한 ‘독본’ 중심으로 편찬되었으며 1907년에는 학부에서 『국어독본』이라는 교과서가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하층의 대중이 주체가 되어 ‘국어’에 대하여 인식하고 일상에서 적극 사용했다는 문증을 직접 찾기는 어렵지만 코젤렉이 말한 ‘민주화’가 1910년 이전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0년 이후에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조선어’라는 기표로서 ‘국어’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일반화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 논문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으므로 1910년대 이전에 국문, 국한문, 한문 글쓰기의 논쟁의 연속선상에서 ‘국어’ 개념의 민주화를 보여주는 『태서문예신보』의 ‘독자의 소리’를 소개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 (5) 가. <독자의 소리> … 신보의기사는 참말노 다른데서는 으더 보기 어려운 유익하고 재미있는것 뿐이어요 그런데 선싱혹 한문자를 좀씩거쓰시면 더 도흐듯한데 …(동경,日,日,生) / <답>… 언한문을 더저미있게 보실만한 그분네와는 서로 손목을 잇글고 언문쓰기를 연구하고, 언문읽기를 가리키려호는것이 본보의 주의외다. 또한 언한문에는 언한문의 장치가 잇고 언문에난 언한문에서는 으들수업는 언

문독특의 다른 웃더한장치가 잇는것이외다。…<태서문에  
신보 제5호 1918 (大正7)/11/02>

나. <독자의 소리> … 언문으로만 쓰라, 언한문으로만 쓰라  
하고 무르시면 이사람은 저 언문으로만 써주십시사고 청  
홀터이올시다。 그러나 주체난 언문으로하시고 언한문으  
로 하여도 관계치 아니홀것만은 언한문으로 하시면 더 도  
홀듯합니다。 (기성 KIS), … 한페이지즘 언한문 페이지를  
만드시면 웃더홀난지요。 (통영 독자), …나난 어디씩지든  
지 언문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下略) (대구 리○순) /  
<답>이와갓치이독히시난이의 의견이 불일하시니가 어니  
편을 좇출난지 모르겟습니다 마난 … 웃더한 의견이든지  
더욱 “ ” 만히 주시기를 바라며, 언문기사에 대하여는 「  
대구 리○순」씨와 갓흔 리히(理解)를 너리시기를 바랍니다  
。 <태서문에신보 제7호 1918/11/16>

(5)를 보면 여러 독자들이 국한문 쓰기와 국문 쓰기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자 대중이 국어 담론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의 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있다.

### 3.2. 시간화

코젤렉이 말한 개념의 ‘시간화’(Verzeitlichung)란 어휘의 의미 내용 속  
에 이전에는 없었던 미래의 기대와 목표가 들어가게 된 현상을 말한다.  
즉 ‘시간화’란 목적을 향한 시간적 운동의 틀 속에 개념이 배치되는 것으  
로서 현재와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모습 사이에서 긴장이 유발된다. 예  
를 들어 ‘공화국’ 개념은 근대에 들어 모든 헌정 체제의 집합 개념이라는  
이전까지의 의미를 잃고, ‘공화주의’라는 신조어와 결합되어 사용되면서

이해집단 간 긴장 속에서 합법적인 유일한 헌정 체제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시간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화’는 역사적 국면 간의 단절 지점을 보여 주게 된다.<sup>25)</sup>

‘국어’가 다른 어휘와 결합하여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은 ‘새로운 개념’이 발명된 직접적인 경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초기 ‘국어’ 담론에서는 ‘국문’과 함께 ‘문명, 부강, 독립’ 등 민족의 독립과 국가의 발전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민족의 독립과 국가의 발전이라는 미래의 기대와 목표가 들어가게 된 것은 ‘국어’가 ‘시간화’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주시경의 『국문론』 일부를 보기로 한다.

(6) 가. … 그제야 바야흐로 우리 나라가 문명 부강 하야 질터이라 간절히 비노니 우리 나라 동포 형제들은 다 씨다라 실상 스업에 급히 나가기를 브라노라 … 큰 성인씩서 문드신 글 즈는 빅호기가 쉽고 쓰기도 쉬우니 이 글즈들노 모든 일을 기록 하고 사름마다 절머슬 썬에 여가를 얻어 실상 스업에 유력한 학문을 익혀 각기 홀몬홀 즉업을 직혀서 우리 나라 독립에 기동과 주초가 되어 우리 대군주 폐하씩서 남의 나라 님군과 궤치 튼튼 하시게 보호 하야 드리며 쏘 우리 나라의 부강한 위엄과 문명한 명예가 세계에 빛나게 하느거시 못당 하도다 <독립신문 1897/04/24>

나. 국문이 한문 보다는 밋우 문리가 잇고 경계가 붉으며 편리 하고 요긴 홀 쏘더러 영문보다도 더 편리 하고 글즈들의 음을 알아보기가 분명하고 쉬은것을 말하엿거니와 <독립신문 1897/09/25>

다. 홀 나라에 특별히 말과 글이 잇는 거슨 곳 그 나라가 이 세상에 텃연으로 홀목 즈쥬국 되는 표요 그 말과 그 말을 쓰는 인민은 곳 그 나라에 속하여 홀 단테되는 표라 그럼

25) 나인호(2011), p. 146; 델빈 릭터(1995/2010), pp. 79-80.

으로 남의 나라를 썩어고져하는 자 | 그 말과 글을 업시하고 제 말과 제 글을 그르시려하며 그 나라를 직히고져하는 자는 제 말과 제 글을 유지하여 발달코져하는 것은 고금턴하 사기에 만히 나타난 바라 그런즉 내 나라 글이 다른나라만 못하다 할지라도 내나라 글을 숭상하고 잘 곳 처조흔 글이 되게 할 거시라. (중략) 전국 인민의 스상을 돌니며 지식을 다 넓혀 주라면 불가불 국문으로 각식 학문을 저술하며 번역하여 무론 남너하고 다 쉽게 알도록 그르쳐 주어야 될지라. 영·미·법·덕 곳흔 나라들은 한문을 구경도 못했스되 더러듯 부강함을 보시오. <서우 2호 1907/1/1>

라. 其一曰 以獨立으로 破事大主義之弊니 (중략) 其一曰 以國文으로 破漢文慣習之弊니 (중략) 其一曰 以平等으로 破門戶久別之弊니(하나는 독립으로 사대주의의 폐단을 깨뜨리는 것이니, 하나는 국문으로 한문을 쓰는 관습의 폐단을 깨뜨리는 것이니, 하나는 평등으로 문호구별의 폐단을 깨뜨리는 것이니) <호남학보 2호 1907/07/25>

(6 가, 나)는 주시경이 쓴 <국문론>의 일부이다. 쉽고 문리가 있고 경계가 밝으며 편리하고 요긴한 국문(한글)을 익혀 실상 사업에 매진하여 국가의 발전과 독립을 이룩하자는 내용이다. (6 다) 역시 주시경이 쓴 <국어와 국문의 필요>라는 글의 일부로 ‘국어’와 국가의 운명 및 발전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 시기 다른 사람의 글들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 라)는 이기(李沂)의 <一斧劈破> 속편(1)의 일부인데 ‘사대주의, 한문 습관, 문호 구별의 폐’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점으로 ‘독립, 국문, 평등’을 내세우고 있다. 즉 ‘국문’이 바로 ‘독립’, ‘평등’과 같은 층위에서 미래 지향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글들에서 우리는 ‘국어’ 개념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국어’에 미래 대한 기대와 목표가 함의되는 것은

이전 시기 ‘국어’ 담론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시간상 단절된 단계 내지는 국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목표 함의, 시간상 단절된 단계를 보이는 급속한 개념 변화는 ‘국어’가 근대에 들어 ‘시간화’를 겪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3.3. 이념화

코젤렉이 말한 ‘이념화’(Ideologisierung)<sup>26)</sup> 이념(이데올로기)적 논쟁이 증대하면서 ‘자유’나 ‘진보’처럼 많은 어휘들이 내용적 구체성, 혹은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실재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잃고 이데올로기 속으로 흡수되어 점점 더 추상화되는 현상이다. 즉 특정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용되던 개념들이 사회적 지칭 범위가 더욱 일반화되거나 의미가 추상화되어 단수 명사 형태로 전체를 아우르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 시민의 자유들’이라는 용법에서 ‘시민의 자유’와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sup>27)</sup>

한국어는 수(數)가 문법범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접미사 ‘들’의 사용도 필수적이지 않아서 단어의 추상화 및 일반화를 언어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국어’ 및 ‘국문’을 나타내는 다양한 기표들이 점차 ‘국어’와 ‘국문’으로 수렴되는 것을 언어적으로 추상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한국어의 수 관련 문법범주의 특성상 ‘이념화’가 가지는 정치적 사

26) 나인호(2011)에서는 ‘이념화’가 아닌 ‘이데올로기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 다른 범주와 같이 3음절 한자어로 표현하기 위해 ‘이념화’로 고쳤다. ‘이데올로기화’든 ‘이념화’든 독일어 ‘Ideologisierung’의 번역어로서는 문제가 없을 듯한데 개념의 ‘추상화’와 관련하여서는 둘 다 적합한 용어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27) 나인호(2011), p. 147; 멜빈 릭터(1995/2010), p. 81.

회적 의미에 집중하여 ‘국어’의 이념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sup>28)</sup>

‘국어’의 이념화는 김병문(2012/2013)에서 강조한 추상적 실체, 즉 랑그로서의 ‘국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알 수 있다. 김병문(2012/2013)에서는 근대언어학이 최소한 일정한 언어적 규칙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만큼은 평등하다고 가정되는 개인,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균질적인 공동체를 전제하며 이때의 평등한 개인은 근대적 주권자로서의 ‘국민’에, 균질적 공동체는 ‘국민국가’에 대응한다고 설명한 뒤 주시경의 ‘국어’ 연구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였다. 즉 ‘국어’의 내적 규칙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만큼은 그들 모두가 동등한 ‘국민’이며 그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은 추상적 층위의 언어 규칙(랑그)이지 실제 발화에서 빚어지는 온갖 종류의 차이(파롤)은 아니라고 하여 주시경의 국어 연구에서 추상화된 ‘국어’를 대상으로 하였고 바로 이러한 점이 언어적 근대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29)</sup>

주시경 시대에 들어 단순히 ‘국어’를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지칭하는 개념에서 추상화된 층위로서 바라보게 된 언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즉 그 내적질서를 대상화하여 들여다보게 된 대상을 표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개념의 변화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코젤렉의 ‘이념화’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어’의 추상화는 ‘평등’이라는 이념적 가치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역시 ‘이념화’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근대 이전의 여러 글들에서도 ‘국어’에 대한 대상화된 인식은 존재했다. 그리고 사역원에서 외국어 교육이나 외국어 학습서 편

28) ‘이념화’의 전형적인 개념어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무정부주의’와 같은 신조어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국문주의’ 정도의 신조어가 보이면 ‘이념화’를 더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조어는 1910년대를 전후로는 찾지 못했다.

29) 김병문(2013)에서 설명한 ‘국어’의 추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병기(2014)를 참조할 수 있다.



찬 등을 생각하면 우리말을 다른 나라의 언어와 다르게 대상화하여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훈민정음에 나타난 ‘국어’나 사역원의 학습서에 나타나는 우리말은 발음, 어휘, 문장 차원의 개별적인 대조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지 추상화된 전체 체계로서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서 ‘국어’를 추상화하여 인식하고 설명하려 했다는 것은 분명 근대적인 변화의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추상화로서의 이념화는 역시 평등의 가치를 전제로 하는 언문일치와도 관련된다. 글을 말과 같게 쓰는 것이 언문일치의 일차적인 의미라고 할 때 구어의 다양한 변종을 생각하면 질서 있는 글쓰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언문일치는 추상화되고 체계적인 구어를 상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근대 ‘국어’ 개념 형성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언문일치 과정 역시 ‘국어’의 이념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4. 정치화

코젤렉이 말한 개념의 ‘정치화’(Politisierung)란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참여하고, 동원되고, ‘보수파’와 ‘진보파’처럼 정적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호명하기 위한 어휘들이 증대하면서 이 어휘들의 정치사회적 활용도와 영향력이 더욱 더 증대된 현상을 말한다.<sup>30)</sup>

훈민정음 창제를 즈음하여 이에 반대한 최만리의 상소는 잘 알려져 있다. 1894년 고종이 국문 사용을 공식화한 것도 훈민정음 창제에 버금가는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나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서 딱 한 건만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매천 황현의 다음 글이 1894년 고종의 제14조 법률칙령 이후 표기법의 변화와 관련한 정황을 보여 주고 있다.

30) 나인호(2011), p. 148; 델빈 릭터(1995/2010), p. 82.

(7) 가. 조병세가 아뢰기를, “국한문(國漢文)을 섞어쓰는 규정을 신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맡고 있는 모든 보고는 마땅히 옛 규례대로 거행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秉世曰 國漢文交書之式 臣誠莫曉矣 臣之所掌凡奏 當以旧規舉行矣 上曰如是爲之也)<sup>31)</sup> <『승정원일기』 고종 33 (1896)년 9월 25일(양력 10월 31일)>

나. 이때에 중앙의 관보 및 지방의 공용서들은 모두 진서와 언문을 섞어 자구를 연결한 것이었으니 대개 *일본의 글 쓰는 법을 본뜬* 것이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옛부터 중국문자를 진서라 하고 훈민정음을 언문이라 하여 이에 통칭 ‘眞諺’으로 일컬었다. 갑오년 이후로 시무를 좇는 자들은 언문을 대단히 받들어 ‘국문’이라고 불러 진서와 구분하며, 진서를 외국 것으로 취급하여 ‘한문’이라 지칭했다. 이에 ‘국한문’이라는 세 글자가 우리말이 되었고 진서나 언문이라는 말은 드디어 없어지게 되었다. 경박한 자들이 한문은 응당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형세가 막혀서 제지되었다. (是時京中官報及外道文移, 皆眞諺相錯, 以綴字句, 盖效日本文法也, 我國方言, 古稱華文曰眞書, 稱訓民正音曰諺文, 故統稱眞諺, 及甲午(高宗三十一年)後趨時務者盛推諺文曰國文, 別眞書以外之曰漢文, 於是國漢文三字遂成方言, 而眞諺之稱泯焉, 其狂狷者倡漢文當廢之論, 然勢格而止.) <『매천야록』 1894년 11월 기록><sup>32)</sup>

(7 가)는 1896년 승정원일기의 기사로 조병세(1827-1905)가 공문서를 국문을 근본으로 한다는 칙령에 의해 실제로 국한문 중심으로 공적 글쓰

31)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을 참조하였다.

32)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에서 찾을 수 있는 국역을 따르지 않고 임형택(1999/2002: 399-400)의 해석을 인용하였다.

기가 이루어지는 당시 풍토에 반대하고 자신은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아 된 내용과 고종이 그렇게 하라고 윤허한 내용이다. 사실 조병세의 진언은 일종의 항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종이 문제 삼지 않고 허락한 것은 1896년 10월 당시 개화파의 쇠락과 훈구대신의 득세를 보여주는 정치세력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7 나)는 역시 전통 유학자로서 애국 계몽운동가인 매천(梅泉) 황현(黃玗, 1855~1910)이 한문을 경시하는 풍토를 비판하는 견지에서 쓴 글이다. 임형택(2000/2002)에서는 이 글에서 ‘진서’가 한문으로, ‘언문’이 국문으로 바뀐 것은 명칭상의 문제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진서’가 오로지 교양의 원천이 되고 출세의 수단이 되고 교육·학문 그 자체였던 체제의 와해, 세계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대상을 읽어냈는데<sup>33)</sup> 한편으로 그러한 한문을 경시하는 시대상에 대하여 반감을 읽을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반감은 한문 경시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反日이나 일본을 등에 업은 당시 개화파 인사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7 가, 나)를 통해 한문을 중시하는 전통 유학자 세력과 국문 및 국한문을 중시하는 개화 세력 사이의 대립에서 ‘국문’ 및 ‘국어’가 담론의 한 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점에서 ‘국어’ 개념의 정치화를 읽을 수 있다.

한자·한문과 국문 사용에 관련한 ‘국어’ 개념의 정치화는 문자 ‘한글’을 근대어로 상정하고 한글 교육, 한글 맞춤법, 표준 한국어 제정 등에서 발견되는 근대어의 특징을 국가 간, 계급 간, 지역 간 여러 종류의 권력 구도 속에서 논의한 이해령(2005)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해령(2005)은 한글의 ‘권력적 서열화’와 관련한 이러한 근대어적 특징은 광화문 현판, 국어기본법 등을 통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12년 공문서에 ‘국어기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33) 임형택(2000/2002), p. 441.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www.minjok.or.kr>) 참여마당 ‘이슈 토크아보기’를 보면 “국어기본법의 개정을 반대한다(박용규 서울강서양천지부 회원, 이극로연구소장)”에 대하여 “國語基本法”의 改正의 反對하는 글에 反對하며(최찬식 대구지부 회원 최찬식 회원의 글)”가 또 이에 대하여 “최찬식 회원의 글(國語基本法の 改正의 反對하는 글에 反對하며)”에 대한 재반론<sup>34)</sup>이 연달아 실려 있고 이에 대한 댓글이 또 다양한 의견으로 달려 있다. 이는 앞서 말한 ‘국어’ 개념의 ‘개념화’와도 관련되지만 이러한 논쟁이 법 개정을 목적으로 ‘순한글파’와 ‘국한문혼용파’의 논쟁 양상을 띠었다는 점에서 개념의 ‘정치화’하고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국어’ 개념의 정치화와 관련하여 식민지 시기 ‘민족어’를 보전하고 사용하려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 간의 대립, 맞춤법 제정을 두고 대립한 소위 ‘한글파’와 ‘정음파’의 대립, 해방 후 소위 한글 파동, 영어 공용화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상론은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 3장에서는 코젤렉이 개념의 혁명적 변화 즉 언어혁명의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한 네 가지 변화 유형에 ‘국어’를 대응시켜 보았다. 각 변화가 ‘국어’ 개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sup>34)</sup> 1910년 이전에 ‘국어’ 개념이 이들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어’가 코젤렉의 시각에서 기본 개념어의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4) 코젤렉 역시 『역사적 기본 개념어』에서 특정 시기에 기본개념어들이 네 가지 특성 모두를 공유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며 또 한꺼번에 네 가지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멜빈 릭터 1995/2010, p. 82).

#### 4. 마무리

‘개념사’는 사회사와 언어사의 접점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사에 가까운 느낌이며 국어사 전공자로서 개념사에 대해 문외한이나 다름 없는 필자에게 ‘국어’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은 사실 역량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어’가 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단순한 의문과 근대라는 문턱을 넘어서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설에서 국어사 전공자의 시각으로 이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뛰어든 ‘국어(國語)의 개념사 서술은 방향 설정에서부터 많은 착오를 겪었고 결국에는 ‘국어’가 과연 개념사 서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회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코젤렉의 기본적인 논의로 돌아가 기본 개념어의 기본 특징들이 ‘국어’에서도 나타나는지부터 살펴보게 되었다.

멜빈 릭터가 지적하였듯이<sup>35)</sup> 코젤렉의 『역사적 기본개념』의 ‘개념사’는 독일어권 유럽의 정치·사회적 언어가 코젤렉이 명명한 바 ‘말안장 시대’ 즉 1750년부터 1850년까지에 걸친 위기와 가속도적 변화의 시대 동안에 변모하였다는 가설을 입증하려 한 것이었는데 역사적 분수령에 해당하는 연대를 확실히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독일어권 유럽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개념어 연구에 코젤렉 이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더라도 『역사적 기본개념』에서 포착한 개념어의 변화 유형은 유효한 것이며 이를 ‘국어’ 개념에 적용해 보는 것은 ‘국어’ 개념사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대의 ‘국어’ 개념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와 『국어기본법』 조문

35) 멜빈 릭터(1995/2010), p. 47.

의 검토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현대의 ‘국어’ 개념에는 ‘공용어’, ‘국민화’, ‘민족성’, ‘국문’, ‘지역성’ 등의 요소가 녹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국어’가 의미적으로 구가 아닌 단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훈민정음을 비롯한 몇 문헌에 소수의 예가 보이는데 이때의 개념과 근대의 ‘국어’ 개념은 일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코젤렉이 설정한 네 가지 개념 변화 범주, 즉 민주화, 시간화, 이념화(이데올로기화), 정치화의 변화가 한국의 근대 이행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모두 발견된다는 것을 통해 질적인 차이를 읽을 수 있었다. 즉 한일 병합 이전 대한제국 시기에 근대적 개념의 ‘국어’는 급진적이고 가속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서로 영향 관계를 맺으므로 국가의 근대화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식민지 상황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기도 하고 급류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고찰은 ‘국어’ 개념사의 또 다른 국면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가 근대적 기본 개념이라고 결론짓기는 했지만 ‘국어’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어 온 단어이며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특정 용례는 근대 개념어가 가지는 특징인 국가 또는 민족과의 연관성도 포착된다. 그리고 ‘국어’를 구성하는 한 축인 ‘국문’으로서 ‘한글’의 존재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국어’라는 단어의 개념화를 앞당긴 측면이 있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보이는 ‘국어’ 개념의 보편성과 한국의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국어’ 개념사 서술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논 저】

- 고영진(2013), 『근대 한국어 연구의 성과와 과제-‘근대국어’의 기점 문제와 관련하여』,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편, 『한일 근대어문학 연구의 쟁점』, 소명출판, 199-240.
- 김병문(2012/2013), 『언어적 근대의 기획-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 박근갑 외(2009),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小花.
- 박슬기(2013), 『한국 근대시의 형성과 율의 이념』, 소명출판.
- 배수찬(2008),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논설문의 성립 환경과 문장 모델 중심으로』, 소명출판.
- 백두현(2004 ㄱ), 『한국어 문자 명칭의 역사적 변천』, 『문학과 언어』 26, 문학과 언어학회, 1-16.
- \_\_\_\_\_ (2004 ㄴ), 『우리말[韓國語] 명칭의 역사적 변천과 민족어 의식의 발달』, 『언어과학연구』 28, 언어과학회, 1-16.
- 송호근(2011), 『인민의 탄생-공론장의 구조 변동』, 민음사.
- 이기문(1977), 『十九世紀末의 國文論에 대하여』, 『語文論集』 19, 20합집,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 이병근(1978), 『愛國啓蒙主義時代の 國語觀』, 『한국학보』 12, 176-192.
- 이병기(2014), 『‘국어’의 언어적 근대는 기획된 것인가?』, 『개념과 소통』 14. (출판사 최종 편집 중)
- 이상혁(2000), 『애국계몽기의 국어의식-당대 연구자들의 국어관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1, 민족어문학회. pp. 105-139.
- \_\_\_\_\_ (1997), 『우리말글의 명칭의 역사적 변천과 그 의미』,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박이정.
- 이현희(2014), 『조선시대의 언어·문자관과 어문생활의 몇 양상: 근대한국어 시기 언어·문자관연구의 概觀을 위하여』, (사)훈민정음학회 2014년 제 1차 집담회(2014/04/24) 발표문.
- 이혜령(2005), 『[기획: 한국 근대어의 탄생] 한글운동과 근대어 이데올로기』,

- 『역사비평』 71, 역사비평사, 337-355.
- 임형택·한기형·류준필·이혜령 외(2008),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성균관대 출판부.
- 장윤희(2012), 『근대 이행기 한국의 자국어 인식』, 『근대 이행기 동아시아의 자국어 인식과 자국어학의 성립(인하대 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2012.11.29))』, 319-343.
- 정선태 외(2006),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대동문화연구총서24』, 성균관대 출판부.
- 정승철(2009), 『어문민족주의와 표준어의 정립』, 『인문논총』 23, 경남대학교, 159-180.
- 조태린(2006), 『‘국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학』 48, 363-394.
- \_\_\_\_\_(1997), 『일제시대의 언어정책과 언어운동에 관한 연구-언어관과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최경봉(2012), 『근대적 언어관의 전개와 국어정립이라는 과제의 인식 양상: 한국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5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31-269.
- 河東鎬 편(1985), 『國文論集成』(역대한국문법대계 제3부 제3책), 탑출판사.
- 한기형(2005), 『기획: 한국 근대어의 탄생』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 전략-언어, 매체, 식민체제, 근대문학의 상관성』, 『역사비평』 71, 역사비평사, 356-377.
- 라인하르트 코젤렉(1979), 한철 옮김(1998),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 멜빈 릭터(1995), 송승철·김용수(2010),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비판적 소개』, 小花.
- 베네딕트 앤더슨(1983), 윤희숙 역(1991/2004),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 사이토 마레스, 황호덕 외 역(2010),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현실문화.
- 李妍淑(イ・ヨンスク)(1996), 고영진 외 역(2006), 『국어라는 사상-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소명출판, 2006.



Prefaces to the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Concepts*, 6-1, pp. 1-37.

원고 접수일: 2014년 10월 1일

심사 완료일: 2014년 10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4년 10월 30일

ABSTRACT

---

Is ‘Gugeo’ (國語, Korean Language/National Language)  
a Basic Modern Concept?

Lee, Byeonggi\*

The essay considers several issues relevant to narrating the conceptual history of ‘gugeo’ (國語, Korean Language/National Language) as part of an advanced work. From examining its definitions in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nd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Law No. 7368), it is noted that the concept of ‘gugeo’ encompasses various implications like ‘official language,’ ‘nationalization,’ ‘national characteristics,’ ‘Korean alphabet,’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o confirm its status as a basic concept in a modern sense, the essay examines whether ‘gugeo’ has undergone the four categories of conceptual change introduced by Reinhart Koselleck, that is, Democratization (Demokratisierung), Temporalization (Verzeitlichung), Ideologization (Ideologisierung), and Politicization (Politisierung). The essay reveals that ‘gugeo’ had gone through or had been going through all these changes in the period before 1910, when the Korean modern transition was underway.

Finally, after stressing the fact that the national awareness of ‘*Hanguel*’, the character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has accelerated the modern conceptualization of ‘gugeo’, the essay presents the need for further studies on this issue.

---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Hallym University